

내가 만든 '연등' 달아요

가족과 함께 만들어 이웃에 선물, 마음 맑아져 재료구입·만들기 쉬워, 종이컵 재활용도 가능

이번 부처님오신날에는 온가족이 둘러앉아 '법등명 자등명(法燈明 自燈明)'의 뜻을 새기며 직접 등을 만들어 보자. 등을 만들면서 가족간에 대화도 나누고 부처님 오신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이 함께 만든 등을 대문에 걸거나 이웃에게 선물한다면 얼마나 뜻깊을까.

특히 올해 조계종 불교위원회에서는 '등 나누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조립식 선물용 팜모등을 개발해 판매 중이다. 집에서 등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철사로 만든 골조와 연잎, 화선지, 풀 등이다. 재료는 서울 조계사 앞이나 부산 대각사 앞을 비롯 전국의 불교용품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기성품 대신 화선지나 색지를 이용해 직접 연잎을 만들 수도 있다. 철사로 골조를 만드는 것이 번거롭다면 종이컵이나 음료수 캔 등에 연잎을 붙여 색다른 연등을 만들어 보자.

5월 4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열리는 연등축제 거리행사 '불교문화마당'에도 연등과 컵등, 팔각등 만들기 코너가 마련된다. 가족 및 친구, 연인들이 함께 찾아갈만하다. 여수령 기자

▶연등 만들기



연잎(각종 색, 녹색), 대나무 또는 철사, 풀, 한지(초배용)

1. 얇게 깎은 대나무나 철사를 팔각등 모양으로 만든 후 한지를 한 면씩 돌려 붙인다.
2. 연잎은 끝 부분에 풀을 약간 바른 후 끈 다음 위쪽에서부터 한 잎씩 붙인다.
3. 연등의 밑 부분에는 녹색 잎을 돌려 붙이는데, 제일 밑줄에는 꽃잎이 아래로 향하도록 붙인다.

▶컵등 만들기



종이컵, 연잎(각종 색, 녹색), 송곳, 풀, 줄

1. 종이컵은 밑부분에서 약 5cm정도 남기고 컵을 접어 자른다.
2. 종이컵 위쪽에 손잡이를 달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서 줄이나 철사를 연결시켜 놓는다.
3. 연꽃잎을 위에서부터 붙인다. 종이컵 밑 부분에는 녹색 잎을 돌려 붙인다.

▶팔모등 만들기



팔모등 만들기 세트, 풀

1. 팔모등 본체의 접는 부분을 접선을 따라 한번씩 접어준 다음 풀칠 부분에 풀칠을 하며 붙인다.
2. 본체가 완성되면 고정용 윗틀과 아랫틀을 각각 네 면의 종이로 감싼다.
3. 등의 두 귀퉁이에 귀틀을 붙이고 그 위에 장식귀를 달아 붙인다. 소망을 적은 서원지는 아래쪽 중앙에 붙인다.



사진제공=조계종 불교위원회

소설가 남지심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식물인간 된 어머니



언뜻 보기에 모델처럼 느껴지는 30대 중반의 부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분은 67세의 생일을 맞은 어머니에게 무슨 선물을 해 드릴까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쓴 책에 사인을 받아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서 <우담바라> 한 질을 제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자기가 어머니의 생일 선물로 그 책을 골랐는가를 설명했습니다.

그 분의 어머니는 슬하에 딸만 셋을 두고 있는데 저를 찾아 온 분이 막내딸이라고 합니다. 모든 가정의 막내가 그러하듯 자기도 어머니의 애뜻한 사랑을 독차지 하면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감성이 풍부한 어머니는 늘 사랑하는 딸들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 하셨는데, 그 덕분에 세자매는 어머니한테 이끌려 온 오는 날 버스를 세 번씩 갈아타면서 어린이 대공원을 가기도 했고, 진달래꽃을 보기 위해 힘들게 정릉 뒷산을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막내인 자기는 대개 어머니 등에 업혀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지금도 그 행복감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벽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와

일류기업에 취직 했다가 미국으로 유학가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도 미국에서 했는데 부인 역시 미국에 유학 가 있던 부잣집 딸이었다고 합니다.

인생 자체가 아버지와 다른 삼촌의 사는 모습 역시 아버지와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양가의 가족을 역시 다른 모습으로 살 수 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다른 것은 어머니와 숙모의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숙모의 다른 점을 열거하자면 한이 없지만 두 분의 사는 모습을 요약해서 설명한다면 어머니는 뿌리를 가꾸는 삶을 살아오셨고, 숙모는 가지 끝의 꽃을 피우는 삶을 살아오셨다고 했습니다.

뿌리는 땅 밑에 숨어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생명의 에너지는 꽃과 비교할 수 없듯이, 내면의 정신세계를 가꾸어온 어머니는 어느 시기가 지나자 숙모를 압도하면서 모든 면에서 당당해지더라고요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는 일생동안 책을 통해서 지혜를 가꾸어오셨는데 몇 년 전 아버지와 고향을 다녀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어머니 의식세계엔 부처님 계세요

결혼해 평범한 주부로 한 생을 살아오셨지만, 어머니는 손에서 책을 놓는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때는 멸시를 당했던 손아래 동서한테도 나중에는 존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서 얘기를 꺼냈으니 그 분이 들려준 가족 이야기를 조금은 더 해야겠군요. 그 분의 아버지는 어머니처럼 경상도 벽촌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가난한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난 아버지는 고향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와 작은 아버지가 경영하는 페인트 가게에서 페인트 공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갖은 고생을 다 하면서 일을 배웠지만 기술자로 자리를 굳히자 대하 나온 친구 부럽지 않게 수입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시골에 있는 동생들 서울로 데려와서 고등학교에 입학할 시켰다고 합니다.

저를 찾아 온 분의 막내 삼촌은 아버지와 10살 차이가 나는데 그 분은 '동네에 신동이 났다'는 소리를 들으며 어린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일 살 아래인 이 동생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페인트 공으로 번 돈을 아깝다는 생각 없이 동생 뒷바라지 하는데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삼촌은 일류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졸업 후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의식을 읽고, 아니 의식을 놓고 마치 식물처럼 고요히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고 있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나 괴로웠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감정도 사라져 지금은 어머니를 위해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하게 된 것은 심층의식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떠올리자 '아! 우리 어머니는 지금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머니를 위해 뭔가를 해드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가슴이 터지도록 기쁘더라고 했습니다.

'67회 생신을 맞은 어머니를 위해 무엇을 해드릴까 생각하다가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이 사인한 책을 선물한다면 어머니가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 어머니는 선생님이 쓴 책을 읽으신 후 불교에 관심을 갖고 그 후론 거의 불교 책만 읽으셨어요.'

따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 분의 어머니가 심층의식에서 제 감사를 받아주시기를 빌면서요.

化緣 (02)704-3577

집에서 만드는 사찰음식

곤드레나물 밥

쌀 3컵, 곤드레 300g, 들기름, 소금, 양념장(진간장 3큰술, 청·홍고추 1개씩, 통깨 1큰술, 참기름 1작은술)

1. 곤드레는 끓는물에 소금을 넣고 데쳐 불에 달가 쓴맛을 우려 후 물기를 짜 송송 찢는다. 들기름, 소금을 넣고 무친다.
2. 쌀 위에 양념이 밴 곤드레를 얹어 밥을 짓는다.
3. 참기름을 쾨 양념장 재료를 섞어 같이 낸다. 참기름은 맨 나중에 넣는다.

<제공=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클릭!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연꽃전등

도자기로 제작 연꽃 정취 물씬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사찰과 집안에 연꽃 전등을 밝혀보자. 도자기로 만들어진 '연꽃전등'은 불을 밝히면 은은한 연꽃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높이는 15cm 이고 값은 3만 5천원이다. (02)732-1520

영험량

픽미승 애인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험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점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점신
- 20년전 낙태혼 점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점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원사 초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빛을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만아심경 8쪽 병풍 종면 담마그림 특별 할인 보급

100% 경면주사로 쓴 만아심경

2000년 대종법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 명품 TV에서 방영된 만아사(佛자 종자)

장미미술대학원 졸업 서울미술문화상 수상

사립설계,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상담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FAX (033) 766-0058 www.ungangsa.co.kr E-mail unjang21@kornet 21.net ※ 오방의 기가 강하게 흐르는 덕화산 운장사 원만성취 영험기도도량

●주문신청방법 우체국 201509-01-002545 운장사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영험기도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韓國佛敎藝術文化院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지전류·지자기의 유헤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 등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헤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사무실·조상묘소의 수맥·지자기·지전류 유류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헤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승복 범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춘하모직** 특징 - 가볍고 통풍이 잘림
적삼·바지: 100,000 ~ 130,000
동방·바지: 130,000 ~ 160,000
두루막: 100,000 ~ 130,000
2. **무명수재** 한국산 명품 염색
적삼·바지: 180,000
동방·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3. **조각무늬** 면 100% 한국산명품, 순염색
광복 - 적삼·바지: 110,000 ~ 130,000
동방·바지: 140,000 ~ 160,000
두루막: 110,000 ~ 130,000
4. **면 래우사** 특징 - 세탁시 풀 안해도 됨
적삼·바지: 130,000
동방·바지: 160,000
두루막: 130,000
5. **장삼** 특징 - 가볍고 통풍이 잘림
모직: 180,000 ~ 250,000
쌈바클: 200,000
6. **신도복** (단체주문발급)
조끼·바지(모직화색): 60,000
7. **셔츠(차이나라운드) · 겹받 · 손가방**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개이절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향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이름승복 전시장: 053-256-0108
공장: 053-425-4449
휴대폰: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